

현대국어 敬語法에 대한 一考察

徐 鍾 學

I. 序 論	IV. 謙 讓 法
II. 恭 遜 法	V. 結 論
III. 尊 敬 法	

I. 序 論

I-1. 국어의 敬語法은 일찍부터 學界의 關心을 끌어 왔으니, 俞吉潸(1909)를 비롯한 다수의 開化期 文法書에서 우리는 그에 관한 記述을 찾아 볼 수 있다.¹⁾ 특히 周時經(1910)의 경어법에 대한 기술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여기에는 경어법을 ‘잇기의 序分’과 ‘뉘기의 序分’으로 나누고 있다. ‘잇기의 序分’을 ‘높음(尊稱)·같은(平稱)’으로 二分하고 ‘뉘기의 序分’을 ‘높음·같은·낮음(下稱)’으로 三分하였는데 前者에 대해서 “지만 주어 높임을 같은이 빚밧”하다고 하고 後者에 대해서는 “-니니다, -십테다, -오, -시오, -다”에 의해서 “長幼尊卑의 나뉠”이 생긴다고 하였다. 특히 후자의 ‘높음·같은·낮음’은 각각 ‘노년·중년·유년’에 쓰는 것이란 지적이 특이하다. (周時經 1910: 98-9).²⁾ 여기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잇기의 序分’과 ‘뉘기의 序分’으로 구별된 것은 지금의 尊敬法과 恭遜法을 인식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둘째, ‘-옵시-, -시오’를 붙여 지적하고 ‘-시오’만을 “높임”의 요소로 본 것은, 謙讓法을 인식하지 못 하였거나 아니면 준경법과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主體(文의 主語)와 聽者를 구별하였으니, “오십테다”는 “오르는 이와 뉘는 이를

1) 俞吉潸(1909: 61-5)는 이를 ‘尊敬’의 ‘謙讓’으로 구분하고, 前者에 ‘-기-, -사-, -조시’가, 後者에 ‘-이다, -입니다, -이옵시다, -이오이다, -와, -오’가 쓰임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분류는 순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 周時經(1910: 99)에는 ‘낮음’에 대해 “만은 모든 이를 노하여 말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周時經(1945: 102)에는 이를 수정하여 “말하여 말하는 것”이라 했다.

다 높이어 말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네째, 공손법을 “長幼·尊卑”에 따라 三分하였는데, 특히 이것을 청자의 연령층과 관련시켰다는 사실이다.³⁾

이와 같이 개화기 문법서의 경어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이후의 각종 문법서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⁴⁾ 그러나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中世國語의 경어법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한 업적으로는 金亨奎(1947, 1948), 許雄(1954, 1963b), 全在寬(1958), 安秉禧(1961, 1965), 李崇寧(1962, 1964) 등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⁵⁾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그 관점과 방법에 따라 몇 가지 문제가 제기, 논의되었다. 경어법에 관한 諸術語의 정의, {-습-}과 관련된 客體尊待說 또는 主體謙讓說의 成立, 主體와 客體 등의 개념과 그 성립여부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의 결과로 중세국어의 경어법은 尊敬法(主體尊待法), 謙讓法(主體謙讓法 또는 客體尊待法), 恭遜法(相對尊待法)의 셋으로 확립되기에 이른다.

경어법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현대국어에서도 계속되었다. 경어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그 體系樹立이 있었고 경어법의 하위범주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도 있었다. 또 현대언어학이론, 특히 생성문법의 수입에 힘입어 이를 이론적 배경으로 한 업적도 있었으며 사회언어학을 바탕으로 한 논의도 있었다. 그 밖에 방언에서의 경어법과 경어법의 변천에 관한 논문도 있다.⁶⁾

이상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과 많은 노력으로 국어의 경어법에 관한 현상이 상당한 부분 해명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 하였거

3) 李翊燮(1974a)는 경어법이 話者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있다. 그리고 화자의 연령에 따른, 경어법(특히 공손법)의 사용에 대한 차이는 朴榮順(1976)에서도 볼 수 있다.

4) 이에 해당하는 참고문자를 몇 들면 다음과 같다.

朴勝彬(1935), 崔鉉培(1937), 洪起文(1947).

5) 그 밖에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金亨奎(1962, 1975), 安秉禧(1982, 1983), 許雄(1975), 小倉進平(1923, 1938).

6) 현대국어의 경어법을 다룬 문지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경어법 전반: 申昌淳(1962), 성기철(1970), 서정수(1972, 1977a, 1984), 崔榮榮(1973),

高永根(1974), 李翊燮(1974a), 황적률(1976a), 이경민(1981), 임재수(1982) 등.

중경법: 林良圭(1975), 任洪彬(1976), 서정수(1977b), 성기철(1984) 등.

공손법: 이기갑(1978), 崔起鎬(1981), 申昌淳(1984), 任洪彬(1984) 등.

생성언어에 의한 분석: 송석중(1967), 이종모(1968), 이종배(1970), 유구상(1971), 강석진(1973) 등.

방언과 관련된 논문: 申昌淳(1967), 李翊燮(1974b), 金重巖(1976), 金永泰(1977), 徐頤穆(1983) 등.

사회언어학: 李孟盛(1973, 1975), 朴榮順(1976, 1978), 黃迪倫(1976b) 등.

敬語法史: 李承旭(1973), 김경수(1984) 등.

나 未盡한 부분, 언급되지 않는 부분 등이 남아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어법의 체계화 및 문법 범주화, 경어법에 작용하는 要因, 현대국어 접양법의 성립여부 및 성립요건, 공손법의 등급과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 공손법의 기능과 서법기능의 관련성 등등, 아직도 우리가 모색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散在해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넓고 다양한 대화의 현장에서 자료를 찾았고, 이것에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기준을 그것도 순서 없이 한꺼번에 적용하여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의의 예문을 가정, 학교, 시장, 직장 등에서 일관성 없이 구해 왔고 경우에 따라 연령, 향별,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삼아 경어법을 설명하여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지양하고 하나의 대화 현장에서 자료를 구하여 하나의 기준에 의해 경어법의 제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여기서 경어법의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일반원리를 찾고 그런 연후에 특이한 예에 대해서는 二次的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들어 오시면 자리에 앉아요”라고 말했다 하자. 이 때 화자가 자신에 대해서 ‘선생님’ 또는 ‘오시면’이라 하였으니 화자가 자신을 스스로 상위자로 대우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것이 못 된다. 그 대화는 특수한 환경(예를 들면 교육현장이라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것으로 경어법의 본질에 접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예들은 보편성이 있는 원리를 찾고 난 후에 설명되어질 것들이다. 또 공손법의 等級을 정할 때에 그에 적용되는 여러 요인(연령, 성별, 신분 등)을 순서 없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화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하나의 요인을 먼저 적용한 후 차례로 나머지의 요인들을 적용해야 한다.⁸⁾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형클어진 실물치에서 실마리를 찾아 내듯이, 복잡한

7) 물론 이의 해석은 李翹燮(1974a)의 설명이 더욱 정당한 것이다.

8) 경어법에 적용되는 요인으로 연령, 성별, 가족적 서열관계(行列), 지위의 상하관계, 親·不親관계, 발화시의 심리적·감정적 관계 등이 논의되었다. 서정수(1984: 5)에는 힘의 관계, 이해관계가, 이익섭(1974a)에는 화자 자신의 나이, 화제인물의 발화 횟수 관계 여부 등이 그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黃迪倫(1976b: 119)에는 사회적인 要因을 들고 그 적용에 대한 형식화(formularization)를 시도하고 있다.

여러 요인을 좀더 단순화하기 위하여 대화의 현장을 한 곳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어법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또 그에 관한 논의는 보다 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현대국어 경어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도한다. 특히 경어법의 체계, 각각의 경어법이 성립되는 조건(또는 환경)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2. 우리는 이와 같은 본고의 목적을 위해, 방법론과 관련된 몇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한다.

대화는 文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文은 시술법·의문법·명령법·공동법 중의 하나의 叙法으로 실현된다.⁹⁾ 서법은 一見, 경어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上下關係를 관찰한 경우에, 시술법이나 의문법과는 달리 명령법은 文의 主語와 聽者가 일치하며 공동법은 화자와 청자가 文의 主語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경어법을 논함에 있어서 서법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어의 叙法形態素(주 語尾)는 공손법의 등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시술법과 의문법은, 그 서법의 차이로 인하여 경어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듯하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명령법과 공동법은 그 주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별도의 논의의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역시 이 둘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後述참조).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시술법·의문법과 명령법·공동법으로 二大別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場合 우리는 다음과 같은 틀로 나타낼 수 있다.¹⁰⁾

$$1. S_0 \cdots \left\{ \left[\left(N_{P_0}, N_0 - K_0 \right) - \left\{ \left[\left(N_{P_1}, N_1 - K_1 \right) - \left(N_{P_2}, N_2 - K_2 \right) - \left[V, S_1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 \left. \left. \left. - c_1 - c_2 \right] - c_3 - c_4 \right\} \cdots H \right.$$

9) 일반적으로 서법은 위의 몇 대다가 갈라짐을 더 포함하고 있다. 論者에 따라서는 그 밑에 한 두 가지를 더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서법으로 경어법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므로 위의 분류를 의의상 백한다.

10) 이 틀은 李翊變(1974a: 53-4)에서 참고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필요성 약간 변경시킬 것을 생각한다. (1)에서 화자(S_0)가 청자(H)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문(S)이 된다. 문법어(N_{P_0})를 공손법어미(c_1)와 함께 S의 밖으로 밀어낸 것은 이들이 청자와 관계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법결어미(c_2)는 그 뒤에 두게 되었다. 서술어(V)는 서술어간(V_{SR})과 결어미어미로 나뉘는데 후자를 다시 c_3 과 c_4 로 나눈 것은 중세국어의 (-습시-)를 의식한 것이다. 그리고 S는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려는 정보의 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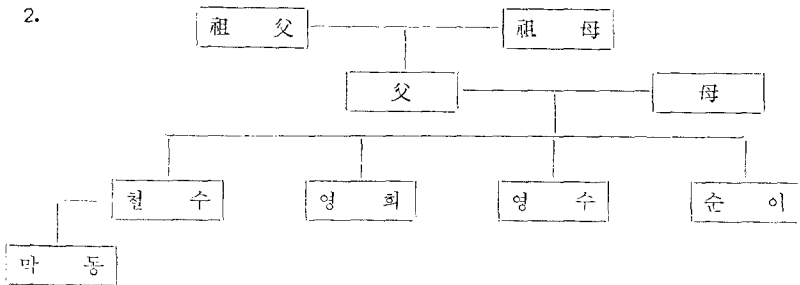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국어의 경어법은 (1)에 표시된 모든 문법요소들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화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N_0 , K_0 , N_1 , K_1 , N_2 , K_2 , V_{st} , c_1 , c_2 , c_3 , c_4 에 경어법과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경어법은 이들 각각에 대한 기술이 되어야 하며 또 그들 간의 상호관계 및 호응관계를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준경어법은 N_1 , K_1 , V_{st} , c_2 에 의해 실현되며 겸양어법은 N_2 , K_2 , V_{st} , c_1 에 의해, 공손어법은 N_0 , K_0 , c_3 , c_4 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N_0 , N_1 , N_2 와 V_{st} 에는 체언과 용언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접미사 ‘-님’의 첨가나 단어의 대체에 의해 경어법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 : 아버지 : 아버지님, 선생 : 선생님, 밥 : 밥지, 너 : 자네 : 당신 : 어르신, 있다 : 계시다, 주다 : 드리다’ 등과 같다. 또 K_0 , K_1 , K_2 에는 격조사나 後置詞가 나타나는데 이들도 역시 그 대체에 의해 경어법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이 : 께시, 에게 : 께’ 등이다. 이러한 단어의 대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는 문법론에서보다는 어휘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또 한 文 안에서의 이들간의 호응관계도 상당히 융통성 있게 나타나므로 이들을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잡으면 상당한 혼란이 오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_2 , c_3 , c_4 와 V_{st} 에 국한하여 논하기로 하고 N_0 , N_1 , N_2 , 및 K_0 , K_1 , K_2 에 의한 현상은 논의로 한다. 그리고 c_1 도 현대국어에서 특수한 경우에만 등장하므로 제외한다. 다만 V_{st} 는 겸양어를 의식하여 다루기로 한다.

(1)에 의하면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넷으로 분류된다. 즉 화자와 청자 그리고 文의 主語와 客語가 그것이다((1)의 N_{p0} 는 언제나 청자와 동일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와 주어가 同一人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등장인물이 셋이 된다. 또 두 사람만이 등장할 수도 있고 특백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다. 우리는 화자와 청자, 주어, 객어 중 어느 하나도 동일인물이 아니어서 네 사람이 모두 등장하는 경우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문의 주어와 객어가 모두 3인칭인 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자, 청자, 주어, 객어 간의 上下關係를 밝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며 (“누구를) 누구와의 對比”(李翹燮 1974a: 40)에서 경어법을 사용하든지 논의하기가 쉬고, 경어법이 성립되는 조건과 그에 작용하는

要因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화자를 포함한 네 사람의 上下關係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 그런데 上下關係란 여러가지 要因(연령, 사회적 직위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그 요인이 극소화된 환경 속에서 上下關係를 결정한다면 경어법에 대한 본질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가족간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바로 그 곳이며 경어법에 대한 인식과 훈련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가족 간의 상하관계는 항상 변함이 없으며 異論의 여지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경어법의 요인도 최소한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의를 가족 간의 대화에서 자료를 찾아 진행하며 그 가족관계는 (2)와 같이 想定한다.



(2)에서 우리는 從的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관계는 상하관계라 파악한다. 즉, 父子의 관계나 祖父와 손자의 관계는 上下關係이다. 반면에 橫的 관계는 平等關係라 본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와 부부관계도 평등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부부관계를 평등한 것으로 보려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데 실제 대화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남편이 아내를 상위자로 대우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¹¹⁾ 그러나 이와 같은 상하관계는 적어도 부자 간의 상하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자간의 상하관계를 기본적인 상하관계라 한다면 부부 간의 상하관계는 2차적인

11) 일부 민연(특히 등남민연)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상위자로 대우하지 않고 매자로 '배라서'를 쓴다.

(또는 부차적인) 상하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고 간주한다. 한편 형제 간의 관계는 평등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서로 ‘해라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들이 成年이 되었을 때는 그 사정이 달라진다. ‘하오체’ 나 ‘하게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역시 2차적인 變因에 의해 형성되는 상하관계로 본다. 즉 화자와 청자의 연령(즉, 成年)이라는 2차적인 요인에 의해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상하관계라 할 수 없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2)의 가족 구성원이 (1)의 화자, 청자, 주어, 객어가 되어 형성할 수 있는 상하관계의 모든 경우를 서법에 따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술법·의문법에서 (1)의 4 사람 사이에 성립하는 모든 상하관계는 75 가지가 된다.

- 3. 가) 4명이 같은 등급인 경우 : 1.
- 나) 3명이 같은 등급인 경우 : 8.
- 다) 2명이 같은 등급인 경우 : 42.
- 라) 모두 다른 등급인 경우 : 24.

그리고 명령법·공동법은 주어가 청자와 일치하거나 또는 화자와 청자가 주어에 해당하므로 세 사람의 관계만 살펴 보면 된다.

- 4. 가) 3명이 같은 등급인 경우 : 1
- 나) 2명이 같은 등급인 경우 : 6
- 다) 모두 다른 등급인 경우 : 6
- (이상, 경우의 수는 생략)

경어법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자료를 수집·관찰·분석하여 얻어지는 경어현상에서 그 조건이나 요인을 밝혀 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언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고 정당한 태도가 되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논의되는 자료의 동질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과 그 요인을 최소화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 (2), (3), (4)와 같은 경우를 설정한 것은 경어법에 작용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동질성을 꾀하자는 의도이다. 미리 등장인물의 상하관계를 결정하고 난 후 그 자료에서 논의한

다른 것은 다분히 우편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지만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정어법에 접근함으로써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利點이 있으므로 그 逆의 방법으로 논의할 전개해 보려는 것이다.

II. 恭遜法

II-1. 공손법은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화자가 자신보다 청자를 상위자로 대우하는 특정한 언어인식(安藤 1983: 34)이다. 그런데 공손법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계의 노력은 주로 화자, 청자의 상하관계에 따른 等級設定의 문제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공손법이 文의 語法(즉 (1)의 c_s, c_r)에 의해 실현되고¹²⁾ 또 그 종류가 다양하게 때문에 그 등급설정도 다양했다. 또 화자와 청자 간의 상하관계를 긍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성분, 직위, 연령, 성별, 친밀도, 이해관계, 사회관습 등)의 미묘한 작용이 그 등급을 쉽게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공손법의 등급은 대체로 4~6 등급 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¹³⁾ 이러한 분류는 그것을 설정하는 諸要因을 통시에 적용시킬 결과이다. 그 요인이 여럿 있다면, 그것을 비중에 따라 하나씩 순서대로 적용시킬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한 때에 문제의 대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접근방법은 이미 여러 번 시도되었다. 즉, 존대:비존대, [Respect]: [-Respect], 높임:낮춤으로 二分한 후 이를 다시 細分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에 의해 수렴되는 것이 공손법이라면 우선 이 관계를 셋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 싶다. 우선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인 경우(Sp > H), 화자가 청자보다 하위자인 경우(Sp < H),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관계인 경우(Sp = H)가 그것이다.¹⁴⁾

II-2. 직술법과 의문법에서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인 경우는 75 가지 중

12) 이 점에 대해서는 공손법의 명어사 수렴도가 문제해결을 지연의 작용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부분(2)의(2)단락)에 살아 있을 뿐, 그것이 語末語尾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2)에서는 c_s 와 c_r 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語尾의 문제로 보려고 한다.

13) 기존의 등급에 대한 소개 및 분석을 서정우(1972: 84-6)을 참조.

14) 문법에서는 $A > B$ 를 A가 B보다 상위인인 것으로, $A < B$ 를 A와 B가 동등한 관계인 것으로, $A = B$ 를 A와 B가 동등하다는 것으로 사용한다.

31 가지이다. (5)는 그 중 일부의 예이다.¹⁵⁾

- 5. ① (父→순이) 철수가 영수에게 책을 {준다. 주느냐?}
- ② (祖父→父) 비 어머니가 철수에게 책을 {준다. 주느냐?}

(5)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서,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이면 문의 주어와 객어와는 전혀 무관하게 語尾 ‘-니다’가 선택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에 ‘-아/어, -네, -오, -아/어요, -입니다’를 代替시켜 보면 이 가운데에 오직 ‘-아/어’만이 자연스럽게 통합됨을 알게 된다. (위의 어미에 대해서는 II-4 참조.) 결국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인 경우에 화자는 청자에 대해 ‘-니다, -아/어’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화자가 청자보다 하위자인 경우 역시 75 가지 중 31 가지가 된다. 다음은 그 중의 몇 예이다.

- 6. ① (철수→父) 영희가 영수에게 책을 {줍니다. 줍니까?}
- ② (철수→父) 할아버지께서 영수에게 책을 {주십니다. 주십니까?}
- ③ (철수→祖父) 아버지께서 영희에게 책을 {주십니다. 주십니까?}

이 때에는 어미 ‘-입니다’가 사용되는데 (6)에 ‘-니다, -아/어, -네, -오, -아/어요’를 대입해 보면 ‘-아/어요’만이 가능함을 알게 된다.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경우는 모두 13 가지가 있다.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① (철수→순이) 영희가 영수에게 책을 {준다. 주느냐?}
- ② (철수→순이) 영희가 막동에게 책을 {준다. 주느냐?}
- ③ (철수→순이) 영희가 아버지께 책을 {드린다. 드리느냐?}
- ④ (철수→순이) 막동이 영수에게 책을 {준다. 주느냐?}
- ⑤ (철수→영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책을 {주신다. 주시느냐?}
- 8. ① (祖父→祖母) 아버지가 철수에게 책을 {줍니다. 줍니까/주어요?}
- ② (父→母) 아버지께서 철수에게 책을 {주십니다/주셔요. 주십니까/주셔요?}
- ③ (母→父)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줍니다. 줍니까/주어요?}

(7)에서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관계에 있으면 화자는 어미 ‘-니다’를 사

15) (5)의 (父→순이)는 화자가 아버지이고 청자가 순이임을 뜻한다. 예문 중 의문법은 저술법과 다른 설명을 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해도 무방하다.

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아/어, -네, -오, -아/어요, -디니다’ 등을 대입하면 이 중 ‘-아/어’만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인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이들이 成年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면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알게 된다. 즉 ‘-디다, -아/어’가 아닌 ‘-네, -오, -아/어요’ 등이 쓰일 수 있다. 이것은 (8)에서도 확인된다. 즉, (7)과 (8)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동등하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사용되는 어미는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으로, (7)과 (8)에서 화자와 청자가 맞바꾸어진 예를 생각해 보자. (7)의 ①에서 ‘순이’는 ‘철수’에게 어미 ‘-디다’를 사용하게 되고 이들이 성년이 되면 ‘-오, -아/어요’를 사용하게 된다. 반면에 (8)의 ①에서 화자와 청자의 위치를 바꾸어도 변화는 없으나 ‘-아/어요, -디니다’가 주로 사용된다. 결국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화자와 청자의 연령에 따라 그 어미는 달리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와 청자의 연령에 따라 선택되는 어미가 다르다는 것은 경어법이 거의 一生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라는 朴榮順(1976)의 지적과 일치한다는 의미는 있겠으나 그것이 곧 경어법 특히 공손법의 문질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前述한 기본적인 상하관계와 2차적인 상하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이면 ‘-디다, -아/어’가, 그 반대이면 ‘-디니다, -아/어요’가 쓰인다.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관계인 경우에 공손법의 어미는 화자와 청자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된다. 그들이 미성년일 때에는 ‘-디다, -아/어’가, 성년일 때(예를 들어 20~30대 이후)에는 ‘-네, -오, -아/어요’가 선택된다. ‘-네’와 ‘-오, -아/어요’는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 구별이 되고, 부부간에 선택된 ‘-디니다’는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 구별될 것이다.¹⁶⁾ (II-4참고).

II-3. 공손법의 등급은 명령법과 공동법에서도 서술법·의문법에서와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자와 청자 간의 상하관계에 따라 논의할 전개하기로 하자.

16) 경어법에 작용하는 요인의 단계적 적용은 黃迪倫(1976b)에서 시도한 바 있다.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인 경우는 13가지 경우 중 5가지가 있다. 그 중의 일부 예는 다음과 같다.

9. ① (父→철수) 순이에게 책을 {주어라. 주자.}
- ② (祖父→父) 철수에게 책을 {주어라. 주자.}
- ③ (祖父→철수) 네 아버지께 책을 {드려라. 드리자.}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이면 어머니는 ‘-아/어라’가 쓰인다. 이 때에도 (9)의 각각에 ‘-아/어, -게, -오, -아/어요, -세요, -십시오’를 대체하면 ‘-아/어’만이 사용 가능해진다. 공동법의 어머니로는 ‘-자, -아/어’가 이에 해당된다.

화자가 청자보다 하위자인 경우는 역시 5가지인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0. ① (철수→父) 막동이에게 책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 ② (철수→父) 할아버지께 책을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화자가 청자보다 하위자이면 명령형에는 어미 ‘-십시오, -세요’가 쓰이고 공동법에는 ‘-십시오’가 쓰인다.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관계인 경우는 모두 3가지이다. 다음이 그 예이다.

11. ① (철수→영수) 순이에게 책을 {주어라. 주자.}
- ② (父→母) 철수에게 책을 {주어요/주세요/주십시오. 줍시다.}
- ③ (철수→영수) 아버지께 책을 {드려라. 드리자.}

(11)의 ①과 ③에서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관계이면 어미 ‘-아/어라’ 및 ‘-아/어’가 쓰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들이 성년이 되면 ‘-게, -오, -아/어요’ 등이 허용된다. (11)의 ②에서 ‘-하십시오’는 어딘가 어색하다. 이 경우에는 ‘-아/어요’나 ‘-세요’가 가장 적당한 어미가 될 것이다. 이것은 (11)의 ①과 ③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결국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이면 ‘-아/어라, -아/어’가, 화자가 청자보다 하위자이면 ‘-하십시오, -세요’가 선택된다. 그리고 그들이 동등한 관계일 경우에는 어미가 다양하게 선택됨은 서술법·의문법에서와 같다.

II-4. 지금까지 우리는 공손법의 등급을 서법별로 나누어,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를 따져 가면서 논의해 왔다. 그 결과,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이

면 화자는 시술어의 어간에 ‘-니다, -느냐, -아/어라, -자’ 및 ‘-아/어’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화자가 청자보다 하위자이면 화자는 ‘-ㅁ니다, -ㅁ니까, -ㅁ시오, -ㅁ시다’ 및 ‘-아/어요’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관계에 있으면 그 어미의 사용이 화자와 청자의 연령과 관계됨을 알았다. 이제 그 논의를 끝맺기 위해서 먼저 그 어미들을 살펴보자. 그것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2.

시 술 법	의 문 법	명 령 법	공 동 법
-니다 -니다요 ?-니다요	-느냐(나) -나요	-아/어라	-자 ?-자요
-아/어 -아/어요	-아/어 -아/어요	-아/어 -아/어요	-아/어 -아/어요
-네 -네요	-는가 -는가요	-게	-세? ?-세요
-오	-오	-오	(?-오)
-ㅁ니다 -ㅁ니다요	-ㅁ니까 -ㅁ니까요	-ㅁ시오	-ㅁ시다 -ㅁ시다요

(12)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려 한다. 지금까지 공손법의 등급은 명령법에 초점을 두어 ‘해라체’ 등으로 命名해 왔다. 이 가운데 ‘해요체’는 ‘반말체’에 ‘-요’가 첨가된 것으로 설명되어 왔는데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술법·의문법과 명령법·공동법에서 ‘-요’가 첨가될 수 있는 것은 ‘반말’만이 아니므로 ‘해요체’를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시술법 ‘-니다, -네, -ㅁ니다’와 의문법 ‘(-나), -는가, -ㅁ니까’에 ‘-요’가 첨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문법에서 ‘-나요, -아/어요, -는가, -는가요, -오’의 서열을 결정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공손법의 등급설정에서 ‘-요’는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요’는 ‘나는요 학교예요 갑니다요’와 같은 예에서도 보인다.) 더우기 ‘반말’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任洪彬(1984)에 의하면 ‘해’체와 ‘해라’체를 따로 분리하여 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것을 명령법이 아닌 다른 저법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 함께 ‘-니다 : -아/어, -느냐 : -아/어, -자 : -아/어’와 같

은 대립이 청자를 상위자로 대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사실과 ‘-아/어’가 공손법의 등급구분에 필수적이 아니란 사실(예: “간다 가”, “가요 가”)에 이르게 되면 그 대립이 無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공손법의 등급과 관련시켜 (12)를 다시 정리하면 (13)과 같이 된다.

13.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Sp>H	-는다(-아/어)	-느냐(-아/어)	-아/어라(-아/어)	-자(-아/어)
Sp=H	-네	-는가	-게	-세
	(-오)	(-오)	(-오)	(°-오)
Sp<H	-되니다	-되니까	-되시오	-되시다

어미 ‘-네, -는가, -게, -세’를 흔히 하위자를 높여 대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은 동등한 청자에 대하여 화자가 쓰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손에게 ‘-네’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화자가 자신보다 하위자인 청자를 동등한 위치로 올려 ‘-네’ 등을 쓰는 것은 하위자를 높여 대우하는 ‘-네’의 2차적인 기능이 된다. ‘-오’는 현대국어에서 특히 대화체에서 그 쓰임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화자가 자신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청자를 2차적인 요인에 의해 상위자로 대우하려 할 때에 ‘-오’가 쓰인다는 점이 ‘-네’와는 다르다(예: 부부간의 대화). 즉 ‘-네, -오’는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관계일 때 쓰는 어미이지만 2차적으로 ‘-네’는 下位者를 높이는 데 선택되고 ‘-오’는 동등한 관계의 청자를 높이는 데 선택되는 것이 다르다. 여기서 한 가지 첨가할 것은 Sp>H와 Sp=H 그리고 Sp=H와 Sp<H 간에는 실제 대화에서 넘나들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 넘나들은 제2, 제3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Ⅲ. 尊 敬 法

Ⅲ-1. 화자와 청자 그리고 주어와 객어가 상하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우

는 모두 75가지가 있음은 앞에서 보았다. 이 가운데에는 앞에서 제시한 (1)의 ‘e₂’에 先語末語尾 ‘-시-’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선어말어미 ‘-시-’가 나타나는 예들에서 우리의 논의는 시작된다.

75가지 경우 중에서 ‘-시-’가 실현되는 것은 모두 43가지인데 이것은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것($NP_1 > SP$)과 그렇지 않은 것($NP_1 < SP$ 또는 $NP_1 = SP$)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前者의 例 가운데 그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하 의문법의 예는 생략함.)

14. ① (철수→순이) 아버지께서 영수에게 책을 주신다.
- ② (父→철수) 너의 할아버지께서 네 엄마에게 책을 주신다.
- ③ (父→祖父) 어머니께서 철수에게 책을 주십니다.
- ④ (철수→영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책을 주신다.
- ⑤ (막동→철수) 할아버지께서 증조부께 책을 드리십니다.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는 75가지 경우 중에서 31가지가 된다. 이때에는 (14)에서 보듯이 ‘-시-’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자신보다 문의 주어를 상위자로 대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시-’라는, 그에 관한 종래의 가장 근본적인 견해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화자가 주어보다 상위자인 다음의 예에서는 ‘-시-’의 사용이 유보된다.¹⁷⁾

15. ① (철수→祖父) 어머니가 할머니께 책을 드립니다/°드리십니다.
- ② (막동→祖父) 아버지가 할아버지(父)께 책을 드립니다/°드리십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청자가 화자와 주어보다 상위자인 경우이며 그 청자는 반드시 成人이어야 한다.¹⁸⁾ 실제 가족관계에서 위의 조건에 합당한 청자는 당연히 成人이다. 그러나 위의 조건에 맞은 청자가 未成年者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시-’의 사용이 유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편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가 아닌 경우에 ‘-시-’가 나타나는 예가 있다.

17) 李翹燮(1974a)의 “철수아빠 아직 안 왔어요”(母→祖父)도 이와 같은 예이다.

18) 존경법에서 청자와는 달리 객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즉 그것이 주어보다 상위자이든 ((14)의 ⑤) 그렇지 않은 ((14)의 ①, ②, ③, ④) 또는 화자보다 상위자이든 ((14)의 ④, ⑤) 그렇지 않은 ((14)의 ①, ②, ③) ‘-시-’의 사용과 무관하다. 따라서 존경법에 관한 한 객어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6. ① (철수→막동) 고모가 삼촌에게 책을 주신다.
 ② (祖父→철수)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책을 주신다.
 ③ (祖父→父) 비 어머니가 철수에게 책을 준다/*주신다.

(16)의 ①과 ②에서 화자와 주어는 동등한 관계에 있으나 ‘-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과 동일한 조건에 있는 ③에서는 ‘-시-’의 실현이 부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바로 청자에 있는 듯하다. 즉, (16)의 ①과 ②의 청자는 未成年인 반면에 (16)의 ③의 청자는 成人이다. 따라서 청자가 주어와 화자보다 하위자라 하더라도 청자의 연령에 따라 ‘-시-’가 다르게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이런 현상은 주어가 화자보다 하위자인 경우에도 나타난다.

17. ① (祖父→철수) 비 아버지가 할머니께 책을 드린다/드리신다.
 ② (祖父→막동) 비 할아버지가 비 아버지에게 책을 준다/주신다.
 ③ (祖父→父) 철수가 막동에게 책을 준다/*주신다.

(17)의 ①, ②에서 화자가 자신보다 하위자인 주어에 ‘-시-’를 사용한 것은 청자 때문이다. 미성년자인 ①과 ②의 청자와는 달리 ③의 청자는 성인이므로 (14)의 예문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되는 조건을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전자의 경우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에 ‘-시-’가 사용되는데 成人인 청자가 그들보다 상위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이 다소 유보된다. 후자의 경우는 청자가 주어와 화자보다 非[上位者]이어야 하며 또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사-’가 실현된다. 만약에 화자나 주어 중 어느 하나라도 청자보다 하위자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해진다. (예, (父→철수) 영희가 어머니께 책을 드린다. 어머니가 영희에게 책을 주신다.) 성인인 청자가 주어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에 ‘-시-’가 유보되는 현상과 미성년자인 청자의 경우에 異例적으로 ‘-시-’를 사용하는 것은 국어 경어법의 一貫된 규칙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존경법에서의 이와 같은 ‘청자의 적극적 역할’ (李翊燮, 1974a: 44)

19) “할아버지가 편지를 잡수실 뻔...”(조부→손자)의 예문(李翊燮, 1974a: 43)도 이에 속한다.

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청자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존경법의 본질에 더 접근하는 것이 되며 前述한 우리의 원칙에도 합당하게 된다. 청자의 이러한 역할은 청자가 어릴 때에 한해서 성립한다고 하였다. 청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함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용법은 특수한 목적(예를 들면 교육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어린 청자에게 언어현상이나 예절 등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문의 주어나 객어를 ‘(네) 아버지, 할아버지’ 등과 같이 청자의 호칭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특수한 의도는 화자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자가 ‘-시-’의 사용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화자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2차적 적용)을 주는 것이라 본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청자의 위치를 의식하고 청자의 입장에 서서 주어를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을 우리는 ‘화자의 객관화’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존경법의 ‘-시-’는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조건에서만 사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청자의 역할에 의한 현상은 ‘화자의 객관화’로 설명하면 된다. 이러한 설명은 두 현상을 별개의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묶어 주는 잇결이 있다. 이것이 I 章에서 전제한 우리의 의도이다.

Ⅲ-2. 명령법에서 文의 주어는 청자와 동일인물이다. 주어와 청자가 동일인물이라면 대화의 場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화자, 주어(또는 청자), 객어)이 된다. 이 세 사람이 이루는 상하관계는 모두 13가지인데 이 중에서 ‘-시-’의 사용이 가능한 것은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5 경우뿐이다.

공동법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文의 主語가 된다. 이 때에도 대화의 場에 등장하는 화자, 청자, 객어의 상하관계는 13가지이며 ‘-시-’가 사용되는 경우는 5가지이다.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8. ① (철수→父) 영수에게 책을 {주십시오. 주십시오/°줍시다.}
 ② (철수→父) 할아버지께 책을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드립시다.}

명령법과 공동법의 ‘-사-’를 고찰하기 전에 그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우

리는 <II-4>의 (13)에서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에 명령법·공동법의 어미를 각각 ‘-하십시오, -하십시오’로 설정했다. 따라서 (18) ①의 ‘-십시오’는 ‘시+하십시오’로 형태소분석이 되는데 앞의 ‘-시-’는 주어에 따라 결정되는 것(즉 존경법에 해당)이고, 뒤의 ‘-시-’는 청자에 따른 것(즉 공동법에 해당)이다.²⁰⁾ 그러나 명령법에서는 주어와 청자가 동일인이므로 그러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십시오’와 같이 굳어진 채 쓰이고 있다. 한편 공동법의 ‘-십시오’도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다만 공동법에서는 주어가 화자와 청자의 두 사람이므로 ‘-하십시오’와 ‘-십시오’가 빈별력을 가지고 있음이 다르다. (18)의 ①을 우리는 “아버지께서 영수에게 책을 주십시오”로 해석할 수 있다.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자이므로, ‘-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명령법에서 ‘-시-’가 쓰이는 조건은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 서술법·의문법과 동일한 현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법의 화자와 청자는 함께 문의 주어가 된다. 그래서 (18)의 ①을 “우리(청수와 아버지)가 영수에게 책을 주십시오”로 해석된다. 그러나 화자가 ‘아버지를 포함한 나’를 상위자로 대우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화자가 자신을 상위자로 대우한다는 것은 국어 경어법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청자(아버지)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때에 ‘-시-’가 실현된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8)의 ①은 “...주십시오”로도 표현된다. 이 때에는 주어 ‘나를 포함한 아버지’에 대해서 ‘-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또한 문제다.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의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文의 주어를 파악함에 있어서 화자가 자신에 그 비중을 두면 주어는 ‘아버지를 포함한 나’가 되어 ‘-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며 반대로 화자가 청자에 그 비중을 두면 주어는 ‘나를 포함한 아버지’가 되어 ‘-시-’를 사용하게 된다.²¹⁾ 따라서 (18)의 ①을 주어와 화자의 관계에서 파

20) 이것은 ‘(가+오, 가+시+오), 가+하십시오, 가+시+하십시오’에서 확인될 수 있다. 즉, 주어의 ‘-시-’가 나타나지 않는 예는 결인의 “한 문 졸업”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드라마와 같은 데에서 “어서 가십시오”와 같은 이상한 말투는 화자가, 청자와 마찬가지로 주어를 의식하는 예라 할 것이다.

21) 이러한 해석은 화자와 청자가 동등한 관계이거나 청자가 화자보다 하위자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청자에 비중을 두어도 그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자가 아니므로 이런 설명은 무의미한 뿐이다.

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법에서도 주어와 화자보다 상위자이면 존경법의 ‘-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대체로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강하게 의식한다. 이런 사실은 청자가 자신보다 상위자인 경우에 화자는 명령법과 공동법보다는 의문법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완곡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주어와 화자와 청자일 때에 청자에게 더 큰 언어적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18)의 ①은 ‘주십시오’가 일반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줍시다’는 ‘-디시다’가 청자를 상위자로 대우하는 형식(공손법)이므로 주어의 하나인 청자를 상위자로 대우하는 것과 일치시켜 사용한 것이라 설명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데 서술법·의문법과는 달리 명령법·공동법에서는 청자가 직접 주어이거나 그 일부이므로 “청자의 지극적 억할” 즉 ‘화자의 객관화’가 일어나는 예가 없다.

Ⅲ-3.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와 화자의 상하관계와 관련하여 존경법을 고찰하였다.

‘-시-’는 주어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에만 나타난다. 다만 서술법·의문법에서 화자가 주어보다 상위자라도 청자가 화자와 주어보다 하위자인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화자의 객관화’로 설명하였으므로 위의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 공동법에서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 중 대체로 청자에 力點이 주어지므로 역시 주어와 화자의 상하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존경법은 화자가 주어를 자신보다 상위자로 대우하기 위하여 주어의 행위(V)에 ‘-시-’를 통합하는 언어현상이라 할 수 있다.

Ⅶ. 謙讓法

Ⅶ-1. 겸양법, 특히 중세국어의 겸양법은 공손법에 못지 않게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누구에 대한 누구의 겸양인가에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습-}은 겸양법의 형태소로서 그 기능을 하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그에 대한 형태소가 따로 없다. 그것은 대부분

어휘의 대체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공손법이나 존경법처럼 생산적인 문법체계는 아니다. 본고에서 ‘주다’를 대상으로 한 이유도 ‘드리다’를 염두에 둔 데 있다.

본고에서는 결양법이 성립되는 조건에 重點을 두어 논하기로 한다.

Ⅶ-2. 결양법은 지금까지 화자와 주어 그리고 객어와의 상하관계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주-’보다 ‘드리-’가 쓰이는 것은 전술한 75가지 중 27가지가 된다. 이 27 경우를 분석하면, 문의 객어가 화자와 주어보다 상위자인 경우가 18가지 경우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9가지이다. 75가지 중에서 객어가 화자와 주어보다 상위자인 18가지 경우는 모두 ‘드리-’로 실현된다. 그 예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9. ① (철수→순이) 영희가 아버지께 책을 드린다.
- ② (父→철수) 비 엄마가 할아버지께 책을 드린다.
- ③ (철수→父) 영희가 할아버지께 책을 드립시다.
- ④ (철수→祖父) 영희가 아버지께 책을 드립시다.

(19)에서 청자와는 무관하게 객어가 화자와 주어보다 상위자이면 ‘드리-’가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결정짓는 조건이 객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와 객어가 주어보다 상위자인 경우 중 어느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주어와 화자 중에서 객어가 주어보다 상위자인 경우와 객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객어가 주어보다 상위자인데 ‘드리-’가 쓰이는 경우는 모두 12 경우 중 6가지가 있다.

20. ① (祖父→철수) 비 아버지가 할머니께 책을 드린다/“준다.
- ② (祖父→父) 철수가 비 어머니께 책을 ʼ드린다/준다.
- ③ (祖父→철수) 영희가 비 아버지께 책을 드린다/“준다.
- ④ (父→철수) 영희가 비 어머니께 책을 드린다/“준다.
- ⑤ (祖父→막동) 비 아버지가 비 할아버지께 책을 드린다/“준다.
- ⑥ (祖父→철수) 막동이 비 아버지께 책을 드린다/“준다.

(20)의 예는 ‘드리-’가 쓰여 무난하다. 단지 (20)의 ②는 ①과 달리 ‘드리-’가 어색한데 이것은 청자(父)에 기인한 듯하다. 존경법을 논하면서 청

자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겸양법에서도 청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러한 청자의 역할은 (20)의 모든 예에 적용된다. 그런데 (20)의 예는 객어가 주어보다 상위자이고 객어가 청자보다 상위자이며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인 경우다.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라야 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21)의 예에서 확인되고, 객어가 청자보다 상위자라야 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22)의 예에서 확인된다.

21. ① (父→祖父) 철수가 제 어미에게 책을 줍니다.
 ② (祖父→祖母) 철수가 제 아미에게 책을 줍니다.
 ③ (父→祖父) 막동이가 철수에게 책을 줍니다.
 22. ① (철수→순이) 막동이가 영수에게 책을 준다.
 ② (祖父→父) 철수가 어멈한테 책을 준다.
 ③ (祖父→父) 막동이가 철수에게 책을 준다.

이상에서 보던 객어가 주어보다 상위자란 조건은 ‘드리-’가 사용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닐을 알 수 있다. 그 조건에 다른 부수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20)에 나타난 ‘드리-’는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우리는 Ⅲ장에서 ‘화자의 객관화’라는 하위조건을 설정한 바 있다. 화자가 청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20)의 예는 객어가 주어와 화자(청자)보다 상위자가 되어 (19)의 예와 같은 조건이 된다. 따라서 ‘드리-’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객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는 대부분 ‘드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그것이 허용될 수 있을 듯도 하다.²²⁾

23. ① (父→철수)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책을 주신다/드리신다.
 ② (철수→父)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책을 주십니다/드리십니다.
 ③ (철수→막동) 베 증조부께서 네 할아버지께 책을 주신다/드리신다.
 ④ (막동→철수) 증조부께서 할아버지께 책을 주십니다/드리십니다.

객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23)의 예에서 청자와 화자가 주어와 객어보다 하위자이면 ‘드리-의 사용이 허용되는 듯하다. 이것이 가능한 듯이 보이는

22) 李翊燮·任洪彬(1983: 226)의 예(23)이 이와 같은 것이다. 예: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주셨다, }드렸다}.

이유는 주어와 객어보다 화자와 청자가 하위자이며 화자보다 객어가 상위자인 데에 있다. 예(23)의 ③과 ④는 주어가 객어보다 상위자인데도 불구하고 ‘드리-’가 다소나마 허용되는 듯한 이유는 화자와 청자가 주어와 객어보다 하위자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모두 주어와 객어에 대해 敬意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하기는 하나 (23)의 예를 포함하여 객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는 ‘주-’가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법임은 분명하다.

결국 객어가 화자나 주어 중 어느 하나보다 상위자이면 또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와 화자보다 객어가 상위자인 경우에만 ‘드리-’가 사용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기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객어가 화자보다는 주어의 상위자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된다.

Ⅳ-3. 명령법과 공동법의 13가지 경우 중에서 다음의 7 경우에만 ‘주-’ 대신에 ‘드리-’가 사용될 수 있다.

24. ① (철수→영수) 아버지께 책을 {드려라, 드리자.}
- ② (철수→父) 어머니께 책을 {주십시오/드리십시오. 드립시다.}
- ③ (父→철수) 백 어머니께 책을 {드려라, 드리자.}
- ④ (철수→祖父) 아버지께 책을 {주십시오/드리십시오. 드립시다.}
- ⑤ (철수→父) 할아버지께 책을 {드리십시오. 드립시다.}
- ⑥ (父→철수) 할아버지께 책을 {드려라, 드리자.}
- ⑦ (祖父→철수) 네 아버지께 책을 {드려라, 드리자.}

객어가 화자와 주어(청자)보다 상위자이면 ‘드리-’가 사용된다는 것을 (24)의 ①, ⑤, ⑥으로 알 수 있다. 이는 명령법에서나 공동법에서나 동일하다. 그리고 (24)의 ③, ⑦의 명령법에서 ‘드리-’가 가능한 것은 청자 즉 주어가 객어보다 하위자인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관찰은 피상적인 것이다. 청자가 화자와 객어보다 하위자라는 사실에 想到하게 되면 이 예들도 ‘화자의 객관화’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24)의 ③과 ⑦의 공동법에서 화자가 주어의 一員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차이는 있겠으나 그것은 위의 설명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24)의 ②와 ④는 청자가 객어보다 하위자는 아니다. 즉 객어가 주어보다 상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리-’의 사용이 가

능한 듯이 보인다. 공동법에서는 주어가 화자와 청자이므로 화자가 자신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하면 그 설명이 가능해진다. (Ⅲ-2참조). 그러나 명령법의 주어는 분명히 청자이므로 非上位者인 객어에 대해 주어의 행위에 ‘겸양’의 의미를 담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와 상당한 거리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가 객어보다 하위자이면 ‘드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런데 이 두 예의 화자가 주어(청자)와 객어보다 하위자임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즉 화자가 대화의 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최하위인물이다. 이런 경우의 화자는 청자에 대해서도 객어에 대해서도 존경의 ‘-시-’를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드리-’를 사용한다. 화자가 객어에 대해서 ‘드리-’를 사용하는 것을 이 두 예에 轉用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24)의 ②와 ④에는 ‘드리-’보다 ‘주-’가 보다 합당한 듯하다. 따라서 화자와 주어가 객어보다 하위자인 경우에 겸양법의 ‘드리-’가 사용됨을 확인하게 된다.

Ⅳ-4. 우리는 겸양법이 화자가 文의 客語를 화자 자신과 주어보다 상위자로 대우하는 언어형식이라는 정의(安秉禧, 1983)에 이르게 되었다. 즉 객어가 화자와 주어보다 상위자이면 ‘드리-’가 사용된다는 것을 서술법·의문법에서 그리고 명령법·청유법에서 밝힌 것이다. 그러나 一見 여기서 벗어나는 듯한 예에서도 ‘드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 존경법에서와 같이 ‘화자의 객관화’로 설명되었고 이런 설명에 의하여 앞의 원칙에 이르게 됨을 또한 밝혔다. 그런데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어법의 변화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앞의 예문 (23)의 ③과 ④ 및 (24)의 ②와 ④는 ‘주-’의 형태가 보다 보편적임을 보았으나 ‘드리-’ 역시 전혀 기이하지 않은 이유는 전통적인 겸양법의 기준이 무너지는 예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V-1. 우리는 지금까지 국어의 경어법을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여 왔다. 기존의 논의는 다양한 실제의 언어현실 속에서 그 자료를

취해 왔고 거기서 경어법에 작용하는 요인을 찾고 조건을 논하면서 경어법의 체계를 수립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어법에 작용하는 요인을 극소화하여 대화를 가족 구성원의 것으로 국한하고 화자, 청자, 주어, 객어의 상하관계를 미리 정한 후 그 경우에 경어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 우리는 경어법에 다음 몇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앞에서 우리는 대화의 場을 다음과 같은 틀로 나타낸 바 있다.

$$25. S_P \cdots \left[\left[\text{NP}_0 \text{N}_0 - \text{K}_0 \right] - \left[\left[\text{NP}_1 \text{N}_1 - \text{K}_1 \right] - \left[\text{NP}_2 \text{N}_2 - \text{K}_2 \right] - \left[\text{V} \text{Vs}_1 - \text{e}_1 - \text{e}_2 \right] \right. \\ \left. - \text{e}_3 - \text{e}_4 \right] \cdots \text{H}$$

화자와 청자의 대화에서 화자가 자신보다 상위자(또는 하위자)로 대우할 수 있는 상대는 청자와 주어 그리고 객어밖에 없다.²³⁾

화자가 자신보다 청자를 상위자로 대우하는 방법은 NP₀와 e₃ 그리고 e₄에 그에 해당하는 문법요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반면에 화자가 청자를 非上位者로 대우하는 방법은 그에 해당되는 다른 문법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공손법이라 불러 왔다. 한편, 화자가 주어를 자신보다 상위자로 대우하는 언어형식을 존경법이라 했다. 화자가 ‘행위자—행위’의 관계에 있는 ‘NP₁—V’에서 NP₁과 Vs₁와 X₂에 적절한 문법요소를 선택함으로써 존경법은 수행된다. 겸양법은 화자가 객어를 자신과 주어보다 상위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화자는 주어의 행위인 Vs₁와 X₁에 문법요소를 남기는 것인데 존경법이 ‘Vs₁—X₂’으로써 V의 행위자(즉 주어)를 ‘높인’ 것이라면 겸양법은 ‘Vs₁—X₁’으로써 V의 행위자를 ‘낮춘’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주어—행위—객어’에서 객어의 ‘행위’는 표현되지 않으므로 주어의 ‘행위’를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객어를 상위자로 대우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

23) 화자가 자신을 상위자로 대우할 수는 없다. 화자 자신을 상위자로 대우하는 문법적 장치(25)에는 없다. 단지 청자 등을 상위자로 대우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하위자로 대우함으로써 화자 자신을 높이는 간접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한편 “본관까지 하직어”와 같은 예문은 화자가 자신이 아닌 주어를 상위자로 대우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24) 절술한 바와 같이 X₁에 해당되는 문법형태로 중세국어의 {-습-}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 {-습-}은 객어를 상위자로 대우하는 기능을 잃게 되고 청자를 상위자로 대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명령법에서 또는 非終結語尾에 통합되는 경우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듯하다.

시 겸양법이란 술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화자가 주어나 객어를 자신보다 非上位者로 대우하려면 上位者로 대우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을 택하면 된다. 즉 ‘-시-’를 통합시키지 않으면 되고 또 ‘주다’를 사용하면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어법은 공손법, 존경법, 겸양법으로 나누어진다. 이 셋은 각각 하나의 상위원칙에 의해 성립된다. 공손법은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에 따라 三分되고 존경법은 화자와 주어와의 관계에 따라 二分되며 겸양법은 객어와 화자, 주어와의 관계에 따라 二分된다. 그리하여 공손법에서 화자가 청자보다 상위자이면 ‘-니다, -느냐, -아/어라, -자’가 나타나고 화자가 청자와 동등한 관계에 있으면 ‘-네, -는가, -게, -세’가, 화자가 청자보다 하위자이면 ‘-히니다, -히니까, -히시오, -히시다’가 나타난다. 그 밖의 ‘-아/어, -오’ 및 ‘-요’가 통합된 형태들은 거기에서 다시 세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존경법에서는 주어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에 ‘-시-’가 통합된다. 그 밖에 ‘-시-’의 통합이 가능한 것은 ‘화자의 객관화’로 해석하여 앞의 결론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통합되지 않으므로 二分되는 것이다. 겸양법에서는 객어가 주어와 화자보다 상위자인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 밖에 ‘드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앞의 설명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V-2. 경어법에 대한 또 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고를 끝맺기로 한다.

겸양법을 경어법의 한 범주로 우리는 다루어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것이 어휘(또는 단어)의 대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며, 李翹燮·任洪彬(1983: 228)에서 지적했듯이 化石化한 것이라면 겸양법을 현대국어의 경어법체계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그것을 공손법과 존경법과 함께 다루는 데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에 경어법을 어휘의 교체에 의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李熙昇(1955: 296-7)의 경어·평어·비어의 구분에 서지된 ‘진지: 밥’에 대해 ‘머리: 대가리’도 경어법에서 다루어야 하고 ‘잡수시다: 떡다: 처먹다’도 경어법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을 허용한다면 현대국어의 공손법, 존경법, 겸양법은 모두 三分 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져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高永根(1974),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對한 研究〉《語學研究》10—2.
- 金亨奎(1947), 〈敬讓詞의 研究〉《한글》12—4.
- _____ (1948), 〈敬讓詞의 研究(續)〉《한글》13—1.
- _____ (1975), 〈國語敬語法研究〉《東洋學》5.
- 朴勝彬(1935), 《朝鮮語學》朝鮮語學研究會.
- 朴榮順(1976), 〈國語敬語法의 社會言語學的 研究〉《국어국문학》72·73合輯.
- 徐禎穆(1983), 〈命令法語尾와 恭遜法의 等級〉《冠岳語文研究》8.
- 서정수(1972), 〈현대국어의 대우법연구〉《語學研究》8—2.
- _____ (1984), 《준대법의 연구》한신문화사.
- 申昌淳(1984), 《國語文法研究》博英社.
- 安秉禧(1961), 〈主體謙讓法의 接尾辭 ‘-습-’에 대하여〉《震檀學報》22.
- _____ (1965), 〈十五世紀國語의 恭遜法의 한 研究〉《국어국문학》28.
- _____ (1982), 〈中世國語의 謙讓法 研究에 對한 反省〉《國語學》11.
- _____ (1983), 〈中世國語 敬語法의 한두 問題〉《國語學研究》白影鄭炳昱先生還甲記念論叢Ⅰ, 新丘文化社.
- 俞吉溶(1909), 《大韓文典》同文館. (現代社 1980, 影印).
- 李崇寧(1962), 〈謙讓法研究〉《亞細亞研究》5—2. (通卷10).
- _____ (1964), 〈敬語法研究〉《震檀學報》25·26·27合併號.
- 李翊燮(1974a), 〈國語敬語法의 體系化問題〉《國語學》2.
- _____ (1974b), 〈嶺東方言의 敬語法研究〉《論文集》6. 서울대 教養過程部, (고영근·남기집, 《국어의 통사·의미론》1983, 탑출판사 所收).
- 李翊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學研社.
- 李熙昇(1955), 《國語學概論》民衆書館.
- 任洪彬(1976), 〈尊待·謙讓의 統辭節次에 대하여〉《문법연구》3.
- _____ (1984), 〈聽者 待遇法上의 ‘해’체와 ‘해라’체〉《秦堂千時權博士華甲記念國語學論叢》.

全在寬(1958), <“슴따위” 敬讓詞 散攷> 《慶北大 論文集》 2.

周時經(1910), <국어 문법> 《周時經全集》(李基文編) 亞細亞文化社.

_____ (1945), <조선어 문법> 《周時經先生遺稿》 三文社.

崔鉉培(1937), 《우리말본》 (1957, 개정판) 正音社.

許 雄(1954), <尊待法史> 《成均學報》 1.

_____ (1963a), <또다시 존대법의 문제를 논함> 《한글》 131.

_____ (1963b),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_____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洪起文(1947), 《朝鮮文法研究》 서울신문사.

黃迪倫(1976a), <國語의 尊待法> 《언어》 1-2.

_____ (1976b), <한국어 대우법의 사회언어학적 기술> 《언어와 언어학》 4
한국의 국어대.